

자조금 의무납부 제도화에 역점 두었으면



윤 석 현
광주전남지부장

한 세기말을 보내고 희망찬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3년간 협회를 이끌어 갈 신입 회장에 당선된 장대석 회장에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IMF체제의 끝이 어딘지 모르면서 그동안 양계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사료공급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비가 다소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1년을 보내면서 양계 산업은 경영부실, 질병확산, 유통혼란 등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 온게 사실이다. 지면을 통해 신입회장에 바라고 싶은 것은 많으나 특히, 정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생산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자조금 의무납부 제도화 및 정부보조 확대를 추진했으면 한다. 자조금은 전례를 볼 때 우리 스스로 마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왔으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본다면 사료나 계란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질병예방 및 방역사업에 적극 대처했으면 한다. 즉, 검역강화, 부화장 종계장 청정화, 수송차량 소독 강화 등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질병퇴치를 위한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보조를 맞추었으면 한다.

셋째 각종 지원자금 탕감 및 금리인하에 노력했으면 한다. 경제위기에 휘말려 농가에 지원되었던 자금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지원된 시설자금을 3%로 인하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무이자 지원으로 농가에서 부담없이 환경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 보조금, 운영자금, 경영자금을 3%로 인하하여 그동안 양계산업의 규모 확대에서 내실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넷째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질서를 바로잡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모색, 상인 농간 배제, 협회 고시가격 준수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 육계계열화 참여농가 권익보호, 양계산물 가격보장 등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중요한 것은 협회가 대내외적으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부, 분회와의 상호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났으면 한다. **양계**